

buddhanews.com

# 한 세상 머물렀다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해야!

## 25면에서 계속

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세월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또 이틀도 없이 말려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에서 태어나고... 차원이 낮게 나고 차원이 높게 나고, 항상 몸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냐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되는 것이 심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 허공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세워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한 도반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드릴 뻔합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은 우리들한테 너무나 큰 일이며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서 게을리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이지 누가 속인다 또 안 속인다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귀를 꼭꼭 막고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안 들릴 겁니다. 또 그 귀 막은 것을 때려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다 들게 됩니다. 역시 눈도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과 이 세상... 아니 보물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볼 때는 보이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도리도 모르거나 우리가 그렇게 진기한 문제를 터득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허망한 물질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삼독을 빼 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나? 나는 항상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체 들고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니 그 생활을 바로 자기 내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놓지를 못하고 또 놓지를 못하면 편안치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그렇게 쪼달리고 방황하고 애를 써야만 합니까? 한 번 와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도 한 세상 저렇게도 한 세상 사는 것이지만 억겁 동안 말리니, 억겁 동안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쓰느니 한 세상에 머물렀다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두들 물질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물질을 쓰되 하나도 씹지 않는 것을 스스로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못 보시길 현실을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빛을 얻어서 어떠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익이 남아서 들어올 것만 알았지 빚져서 이자와 더불어 같이 나가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것때 그만 잃어버려서 땅진을 하는 수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분수를 알맞게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두들겨 가면서 걷는다면 아마 천둥 베풀어 내리도 끄떡도 안 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보통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좀 없애고 그냥 살겠지.' 그러지만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걸 발견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세균, 영계, 윤회, 생사, 윤행, 업보에 꼬달리면서 살아나가니까 그 고답품은 말도 못합니다.



##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와 나라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서 나 하나만 몰락 버어낸다면 그 외의 것은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공(空)해서, 벗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지어서 속는 것이고 그게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생각해서 누가 모든 걸 망하게 했고 누가 흥하게 했고 누가 웃게 했고 누가 울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공덕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진심으로 애썼던 내 성의껏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미래의 덕을 쌓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현실의 공부를 할 때 영원한 오늘,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나 하나만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도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가 어려운가 하면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가 하면 어렵기도 합니까? 이것이 가다 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잘 여미고 다시 한 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사회를 포기했습니다  
질문: 저는 지금의 이 사회를 포기했습니다. 논

만 뜨고 나면 회사들이 부도가 나더니 이제는 나라가 부도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주위의 고통을 볼 때마다 마음을 냈지만 제가 깨닫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헤어날 기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나요? 어쩌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깨달음의 길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이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 생각을 내도 지혜롭고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내가 없애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잡념을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안 될 텐데,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믿고 나가고 말입니다. 내가 회사원이랄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써 만물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깨진다 안 깨진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안 되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 생각을 딱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 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덮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 몸뚱이지만 한 사람의 몸뚱이라 해도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 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걸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걸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걸 안 된다는데...' 이러거든요. 야,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칭고 마음내기 이전은 '부(父)'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는 '자'로 하나가 돼 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다가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 절을 해도 자가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믿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에 못 다녔는데 나중에 내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와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어넘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체험을 해 나가시라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민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五

神通)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 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 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이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 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음이 와서 느껴진 단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 보셨지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가고, 친구 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서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때 그 허전함이 말할 수도 없고요. 꿈에 참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꾀다. 야!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 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 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듯이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報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으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라든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대우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대우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dawoosuperenertec.com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量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우부 부회(법정 자원봉사위원장)  
- 대한불교 원흥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무원 역  
- 한양대학교 대학원교수  
- 한양대학교 대학원교수  
- 한아래담 주지

[논의]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성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화파의 비교 연구  
- 공자상에 대한 일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자]  
- 그 속에 깊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행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제원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예레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 10장 - 불고기초지식  
제 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담)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sa.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종감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정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물에서 깨끗한 참다슬기와 구슬달 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한다.

◆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